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황 현 우

#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Classification of Under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 Based on Local Private University A

2018년 0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황 현 우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지 은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황 현 우

## 황현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민성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배영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지은 (인)

2018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문제 .....	3
II. 이론적 배경 .....	4
A. 대학생 학업부진과 학사경고 .....	4
B. 학사경고의 원인 및 학사경고자의 특성 .....	7
C.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	12
III. 연구 방법 .....	16
A. 연구 절차 .....	16
B. 연구 대상 .....	18
1. 인터뷰 연구대상 .....	18
2. 설문 연구대상 .....	18
C.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	23
1. 인터뷰 프로토콜 .....	23
2. 설문지 .....	27
D. 자료 분석 .....	42
IV. 결과 .....	43
A.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 분류 .....	43
B.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의 특성 .....	47

C.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별 차이 .....	52
V. 결론 및 논의 .....	53
VI. 참고문헌 .....	59
부록 .....	67
1.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특성 및 원인 탐색을 위한 설문지 .....	67

## 표 목 차

<표 1> 학사경고 관련 주요 선행연구 .....	8
<표 2> 학업 외 특성 선행연구 .....	10
<표 3> 학업 특성 선행연구 .....	11
<표 4> 환경적 특성 선행연구 .....	11
<표 5> 국내외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 분류 .....	13
<표 6> 국내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	15
<표 7> 연구절차 .....	16
<표 8> 연구 대상자의 소속단과대학 .....	19
<표 9> 연구 대상자의 학사정보 .....	20
<표10> 학사경고횟수와 경고를 받은 시기 .....	21
<표11> 휴학경험과 휴학이유 .....	22
<표12> 인터뷰에 사용된 개방형 질문 목록 .....	24
<표13>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 .....	25
<표14> 학업부진 요인 특성에 따른 분류 .....	26

<표15>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 구성 .....	29
<표16> 학업 외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	34
<표17> 학업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	35
<표18> 환경적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	36
<표19>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37
<표20>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 .....	38
<표21>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소속계열별 차이 .....	39
<표22>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학사경고 횟수 차이 .....	40
<표23> 군집 수에 대한 빈도분석 .....	43
<표24> 군집 분류 .....	45
<표25> 군집별 요인 평균점수 순위 .....	46
<표26> 학업부진 유형별 차이 .....	52

## 그림 목 차

<그림 1> 계층적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의 수 결정 .....	44
------------------------------------	----



## 감사의 글

대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은 꿈이 생겨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대학원 과정 동안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떤 교육자가 되어야하며, 어떤 교육을 지향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배움이 많이 부족하지만 석사과정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 학습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흡하지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이지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기대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늘 죄송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해안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논문 심사를 해주신 배영주 교수님과 김민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 독자를 고려하는 필자의 의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배웠고 교수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연구라 대상을 모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늘 뜨거운 에너지로 Grit을 외쳐주신 장문정 아나운서 선생님, 응원해주신 오윤영 선생님, 인터뷰 대상 모집을 위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전화를 돌려주고 응원을 해준 상담센터 윤은지 선생님, 개인정보 때문에 설문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홍보 해주신 상담센터 기하형 선생님, 홍보 목적이 아닌 SNS커뮤니티에 연구의 의의를 보고 꼭 필요한 연구라며 홍보를 선뜻 허락해주신 커뮤니티 담당자님과 홍보에 도움을 준 출신출왕 태현이, 늘 응원해주셨던 교수학습개발팀 선생님들, 그리고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해 준 18명의 학생들, 설문에 참여해준 132명의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 06. 04. 황현우 드림

## 초 록(ABSTRACT)

###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요인을 탐색하고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진학생에 대한 이해와 설문지 개발을 위해 A대학 재학생 중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검토, Pilot 테스트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총 82문항의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총 13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학업부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학사제도 및 학습 지원 안내’, ‘학습역량’, ‘교수와의 관계’, ‘수업이해’, ‘생활습관’, ‘학과/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A대학 학사경고자의 유형이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군집들은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사례분석과 차이분석을 하였다.

\* 주제어: 대학생 학사경고, 학업부진 요인, 학업부진 유형, 군집분석

## ABSTRACT

### Classification of Under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 Based on Local Private University A

Hwang, Hyun Woo

Advisor : Prof. Lee, Jieun, Ph.D.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under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robation and classify them into categories. This study was based on Local Private University A, In order to understand underachievers and construct a questionnaire, the final 18 students who underwent academic probation at least once in A university were interviewed.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factors of underachievement derived from interviews and factor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The final questionnaires of the total 82 items were developed as a measurement tool after validation through expert review and pilot testing. A total of 132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9 factors that influence underachievement. Seco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underachievement were 'Academic system and study support guide', 'learning ability', 'relationship with professor', 'classunderstanding', 'life style', 'department/major satisfaction'. And last,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and it was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These clusters were 'dissatisfaction with major and relationship with professor', 'perception regarding service of the academic system and study support', 'major lack of basic knowledg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of life styl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rough characteristics of cluster type and it was done using case analysis and difference analysis.

\* *Key word: College academic probation, factors of underachievement, type of underachievement, cluster analysis*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서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과 동시에 진로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대학 생활은 가족생활, 취미생활 등 삶을 이루는 영역처럼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 생활을 통해 고등학교시절까지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했던 꿈에 대한 도전, 동아리 활동,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자율성의 확립, 대인관계의 성숙, 인생목표와 개인의 발달, 정체성의 확립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Berk, 2007).

한국대학신문 2017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 이유에 대해 응답자 36.6%가 ‘취업의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자가 20.7%, 그 다음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라는 응답은 18.7%였다. 스스로 대학진학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다들 대학을 진학하는 분위기라서 덩달아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경우는 14.7%에 그쳤다(한국대학신문, 2017). 대학에서의 학업은 대학, 사회, 개인에게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학업부진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상실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전호정, 2017). 대학정보공시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국 251개 4년제 대학에서 중도탈락 학생은 152,095 명이고 이 중 3,301명은 학사 경고누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학알리미 2017년도 중도탈락학생 현황).

학사경고는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독려하고자 부여하는 것인데, 많은 대학과 학생들은 학사경고를 징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학생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Hanger 외 2011; Mann, Hunt, & Alford, 2004). 학사경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큰

좌절감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미희, 2014; 장애경 외, 2013; Fenning 외, 2013). 학사경고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대학은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부실대학이 양산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학습권을 침해받게 되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학업 중단 및 이탈로 중도탈락을 가중시킬 수 있다(배상훈, 2014; 이석열, 2008).

대학생의 학사경고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학사경고 원인과 특성을 찾기 위해 학사경고군과 학업우수군을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 학사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학사경고자의 학사경고 극복과 학교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사경고자의 특성과 원인을 깊이 탐색하지 못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학사경고 원인과 특성을 찾기 위한 연구들은 학업부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보다는 학사경고자와 학업우수생들의 특성을 단순 비교하고 결핍된 특성만을 나열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강순화 외, 2000; 조경원 외, 2000; 한덕웅 외, 2000). 그리고 학사경고에 대처하는 과정을 유형으로 분류했으나(전호정, 2017), 소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이기에 분류된 유형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학업부진의 요인은 학생이 속한 맥락, 즉 대학, 학과,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사립 A대학을 중심으로 학사경고 대학생의 학업부진 요인은 어떤 것이며, 학업부진 유형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더 많은 사례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대학 대학생의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A대학의 학사경고자는 어떤 학업부진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A. 대학생 학업부진과 학사경고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된 고등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이다”(고등교육법 제28조). 즉, 대학은 전공 분야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배워, 실제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며 사회진출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대학의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폭넓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배울 수 있다(박인선, 2017).

최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를 기록하고 있고(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2017), 대학 진학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36.6%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라는 14.7%의 답변 보다 많았다(한국대학신문, 2017).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사회에서의 삶의 질 차이를 보기 위해 교육수준별 고용률 통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72%, 대학 졸업자 77%로 대학 졸업자가 취업이 더 잘되고, 비정규직 비율은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5.3%나 낮았다. 학력별 임금 격차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 월 184만원, 대학교 졸업자가 월 228만원으로 44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2017). 통계청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일수록 결혼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에게 대학은 학문과 인성의 배움과 성장을 넘어 사회에서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진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은 대학, 사회, 개인에게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른 학업부진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상실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전호정, 2017).

학업부진은 ‘정상적인 학습 능력이 있지만, 교과가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박성익, 1986). 이것은 학습장애와 다른 개념으로, 지능은 정상수준이나 내·외부 영향으로 인해 학업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김은숙 외, 1987; 손승현, 2008; 윤만석, 2010; 전효선, 2011).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업부진을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지능검사 등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정차남, 민천식, 2008). 대학에 비해 초·중등학교는 학업부진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소정, 2013). 반면 대학에서의 학업부진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전공 분야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교육과정의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학업부진을 구분하기 어렵다(배상환, 2014). 그리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의 학습환경은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학업부진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타당하다(이명애, 2006). 대학에서의 학업부진은 학업에서의 부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 후,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스스로 학업내용을 선택하고 학습해야 하는 교육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기도 한다(전보라 외, 2015).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업이 고교 때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도 된다고 기대하다가 학업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장애경 외, 2013). 또한, 교수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다른 활동에 몰두하거나 학업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Spady, 1970; Tinto, 1975). 그러므로 대학에서 학업부진은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학습적,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학업부진이 지속되면 '학사경고'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학사경고란 대학이 학생들에게 충족해야 할 최소 학점 기준을 주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련의 제재를 가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Fletcher et. al., 2010). 대학마다 기준은 상이하며 평점 4.5점 만점인 경우 1.5와 2.0 사이로 설정된다.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유기정학 또는 수강신청 제한 등과 같은 제재를 받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Smith 외, 1970). 학사경고제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본래 학사경고제도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독려하여 학업부진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Hanger et al., 2011). 대학은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학생의 지도교수나 부모님에게 학사경고 사실을 고지하고, 지도감독의 의무를 부여한다(전호정,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251개 4년제 대학에서 중도탈락 학생은 152,095명이고 이 중 3,301명은 학사 경고누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 4년제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경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사경고를 받을 당시에는 '알림시계'의 역할로



다음 학기 학점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거나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cher & Tokmouline, 2010). 즉, 학사경고제도가 학생들의 학업부진 극복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제도 자체로는 학업부진을 극복하게 돕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학사경고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외 대학들은 대학 차원에서 학사경고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의무적으로 장기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만족도와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Hunt & Alford, 2003; Vander & Brian, 2007). 반면 국내 대학에서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뿐 지원 제도가 미흡하고, 학사경고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책임부서의 부재로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강순화, 2000; 김나미 외, 2014; 신성만, 김정훈, 2012; 이종연 외, 2013; 조경원, 2000; 주영아 외, 2013). 또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학습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박민정, 최임숙, 2012)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학에서의 학사경고 대학생 관련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참여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점으로 인해 연구가 쉽지 않다. 대부분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업부진 관련 요인 탐색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에 초점을 두지만, 대부분 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확한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한 유형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양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대학생 학사경고의 학업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부진 요인별로 유형을 분류한다면 향후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방향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B. 학사경고의 원인 및 학사경고자의 특성

학사경고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 학사경고 원인과 특성을 찾는 연구에서 밝혀낸 학업부진의 원인은 학습동기의 부재, 지나친 과외활동, 대학과 전공에 대한 실망감, 스트레스 관리의 실패, 낮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의 부재, 대인관계, 학습방법, 시간관리 등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밝혔다(양명희, 2014; 조경원 외, 2000; 천주명 외, 2014).

둘째, 학사경고의 원인을 학업부진으로 보고 학사경고자를 비롯한 학업부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나미 외, 2014; 배상확, 2014; 윤정선, 박부진, 2014; 이종연 외, 2013)가 진행되었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학습 동기 향상 프로그램, 자기탐색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전략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 및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김나미 외, 2014; 주영아 외, 2013)을 보였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학사경고를 극복했는지 보지 못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내용에 있어 제공되는 정보가 단편적이어서(박민정, 최임숙, 2012)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학사경고자의 학사경고 극복과 학교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들이다(장애경, 양지웅, 2013; 주영아 외, 2012). 학사경고를 어떻게 받게 되었고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학사경고를 극복함에 있어 외부자극에 의한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목표 수립 및 책임감, 여학생은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서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습동기가 부족함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인관계, 환경요인 등의 변인 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주로 중심 표본이 작은 질적연구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학사경고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학사경고 관련 주요 선행연구

분류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변인
학사경고 자 특성 및 원인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2000)	학사경고생의 실태와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전공 불만족 수업 태도 대인관계
	권혁재(2012)	대학생의 학업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진로-적성 일치도 학습동기 목표의식
	이훈병(2016)	대학에서 학업부진 학습자 진단을 위한 주요인 분석	학습동기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천주명, 권민혁, 한영숙, 임영진 (2014)	D대학교의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학사경고자 학업 상담	학습동기 시간관리 대인관계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2013)	학사경고자 대학생을 위한 자기탐색 프로그램 개발	자아 존중감 사회적 관심
	주영아, 정희진, 황선희, 김영혜 (2013)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전공 만족도 전공 이해도 변화된 환경의 적응력 대인관계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201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 회복탄력성
	윤정선, 박부진(2014)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중재 및 효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배상확(2014)	학업부진 대학생의 실태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전공 이해도 목표의식 기초 학력

분류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변인
학사경고 극복요인 및 과정	장애경, 양지웅(201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목표의식 변화된 환경의 적응력 사회적 관심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2012)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학사정보 수집 능력 대인관계 자기조절능력 전공 만족도 변화된 환경의 적응력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학사경고 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개인의 내면 측면에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양명희, 2014).

다음으로 학습관련 측면에서 학업부진 대학생은 보통 불규칙한 학습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제나 시험을 포함한 학습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조경원 외, 2000). 또한, 여러 가지 핑계로 학습을 미루고 지각이나 결석의 빈도가 높으며 시간관리에 미숙한 특징을 보인다(천주명 외, 2014; 한덕웅, 이경성, 2000).

마지막으로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학업부진 대학생은 변화된 환경과 늘어난 자유를 조절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경, 양지웅, 2013, 주영아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학사경고를 결정하는 학업부진 변인과 임이랑(2016)이 정리한 학업부진 관련 변인을 참고하여 학사경고 요인을 학업 외 특성, 학업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학업 외 특성으로는 학업관심,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음주정도,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 자긍심, 자기신념, 자기개념, 유능감, 희망, 자신감, 성실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기중심적 조망, 스트레스 대처 등이 보고되었고 <표 2>와 같다.

<표 2> 학업 외 특성 선행연구 (임이랑, 2016, <표Ⅱ-1>을 재구성)

범주	요인	구성내용	선행연구
학업 외 특성	대학만족도	학업관심	김경희(2011)
		대학만족도	강승호(2010), 김경희(2011)
	학과/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	남영옥, 이대형(2016)
		수업만족도	서민원(2008), 이지선(2013)
	생활습관	음주 정도	강승호(2010)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	장애경, 양지웅(2013), 주영아 외(2012), 강승호(2010)
			자긍심
	정서	자기신념	Valentine, et al.(2010)
		자기개념	Fenning & May(2013)
		유능감	강승호(2010)
		희망	이종연 외(2013)
		자신감	박민정 외(2012)
		성실성	박민정 외(2012)
		회복탄력성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자아존중감	전병재(1974)
		자기중심적 조망	주영아 외(2012)
		자기효능감	한덕웅, 이경성(2000) 김아영, 박인영(2011)
	스트레스 대처	양애경, 양지웅(2013)	
김정희, 이장호(1988)			

학업 특성으로는 학습동기, 시험준비, 시간관리, 과제관리, 공부습관, 실패대처, 학습방법/전략, 학사정보 수집능력, 시험불안, 학업소진, 학업정체성, 학습내용이해노력 등이 보고되었고 <표 3>과 같다.

<표 3> 학업 특성 선행연구 (임이랑, 2016, <표Ⅱ-2>을 재구성)

범주	요인	구성내용	선행연구
학업 특성	학습역량	학습동기	신성만, 김정훈(2012)
		시험준비	강순화 외(2000)
		시간관리	남영옥, 이대형(2016),
		과제관리	강순화 외(2000), 조경원 외(2000)
		공부습관	정미경(2005), 박성미(2009)
		실패대처	고홍월(2012)
		학습방법/전략	강순화 외(2000)
		학사정보 수집능력	주영아 외(2013), 남영옥, 이대형(2016)
		시험불안	이훈병(2016)
		학업소진	고홍월(2012)
	학업정체성	Smith(2010)	
	수업이해	학습내용이해노력	이훈병(2016)

환경적 특성으로는 학업관심,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음주정도,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 자긍심, 자기신념, 자기개념, 유능감, 희망, 자신감, 성실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기중심적 조망, 스트레스 대처 등이 보고되었고, <표 4>와 같다.

<표 4> 환경적 특성 선행연구 (임이랑, 2016, <표Ⅱ-3>을 재구성)

범주	요인	구성내용	선행연구
환경적 특성	아르바이트	생활수준	한덕웅, 이경성(2000), 이훈병(2016)
		부모와의 관계	강순화 외(2000), 조경원 외(2000)
	사회적관계	교수와의 관계	장애경, 양지웅(2013), 이훈병(2016)
		유용한 대인관계 부족	김경희(2011), 김미희(2014)
	학교 정책 및 서비스	교내외 활동	강순화 외(2000), 조경원 외(2000)
		프로그램 지원	McGrath & Burd(2012)
		교육서비스	김창민, 박인우(2012)
		학사정보 수집	주영아 외(2013)

이와 같이 학사경고 관련 연구는 그 원인과 특징을 찾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학사경고 관련 연구는 대상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로 질적 연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 학업부진 유형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의 학업부진 요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업부진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학업부진 대학생 지원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C.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국내외에서 학사경고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1940년대부터 학사경고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 또는 집단 형태의 개입전략들이 연구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 학사경고자 실태 파악에 주목하였다가 2011년 이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이용진 외, 2017). 이는 2011년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준거에 학사경고생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면서(한국대학평가원, 2012)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내외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사경고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결핍특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개발되어 운영되었다.

크게 대상과 내용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하면, 먼저 가장 빈번히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습전략과 심리상담이 있었다. 학습전략 프로그램으로는 시간관리(신성만, 김정훈, 2012; Mann, Hunt, & Alford, 2004),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Allsopp, Minskoff, & Bolt, 2005; Arcand & Leblanc, 2011; Sappington 외, 1980), 학습 스타일에 대한 이해(Polansky, Horan, & Hanish, 1993), 학습목표 설정(Kamphoff 외, 2007), 학사 지도(Arcand & Leblanc, 2011; Juola, Wiburne, & Whitmore, 1968),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리 상담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학습 동기(신성만, 김정훈, 2012), 자아존중감(이종연 외, 2013), 자기통제감(Kamphoff 외, 2007), 자기결정성(주영아 외, 2013), 스트레스 대처(주영아 외, 2013) 등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운영을 개별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개인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거나 개별상담을 지도(김나미 외, 2014; Arcand & Leblance, 2011; Yang, Yon, & Kim, 2013; Allsopp, et al., 2005; Wlazeleke, Coulter, 1999)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집단으로 진행한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이종연 외, 2013; Humphrey, 2006)등이 있다. 이용진 외(2017)가 제시한 국내외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에 본 연구자가 조사한 내용을 넣어 <표 5>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5> 국내외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 분류 (이용진 외, 2017을 수정)

연구주제	세부내용	연구자
대상별	개인	멘토링, 개인상담, 개별 학습컨설팅 김나미 외(2014) Arcand 외(2011)
	집단	소집단 워크숍, 신입생 OT, 집단상담, 학습 커뮤니티 주영아 외(2013)
	심리적 특성	자기결정성, 스트레스 대처, 긍정적 자아, 불안, 긴장완화, 자기통제감, 유능감 신성만 외(2012) 주영아 외(2013)
내용별	학습전략	시간관리, 학습과제 이해, 목표설정, 시험관리, 학업스타일, 읽기·쓰기 능력, 학습동기 증진전략 신성만 외(2012) Mann 외(2004) Kamphoff 외(2007)
	학사 및 진로관련 지식	수강과목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진로계획 이종연 외(2013) Humphrey(2006) Arcand 외(2011)
	대인관계	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Arcand 외(2011) Allsopp 외(2005)

국내 대학의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선정 대학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가 공개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개별 학습컨설팅, 개인상담, 집단상담, 개별 멘토링, 학습커뮤니티, 소집단 워크숍 형태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유형검사, 학습 컨설팅, 학습상담, 심리검사, 학습전략, 선후배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여 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특전이 주어졌는데,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학점 제한 면제, 성적향상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 선발, 학습 커뮤니티 운영지원금, 학사경고 횟수 1회 삭감 등이 있었다.



개별 학습컨설팅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가천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학습전략, 학습 컨설팅 및 피드백, 학습유형검사, 학습상담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특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을 학적부에 기록한다.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건양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심리검사, 학습유형검사, 개인별 심층상담, 검사결과 단체해석,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 이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면제하거나 학사경고 횟수 1회 삭감을 특전으로 주었다.

개별 멘토링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목원대학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대학생활 적응 상담, 학습상담, 우수 학생과의 멘토링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 이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 선발 기회와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면제하는 특전을 주었다.

학습커뮤니티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계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선후배 멘토링과 지도교수 상담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참여 이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전을 주었다.

소집단 워크숍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선문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학습유형검사와 시간관리, 노트 필기, 학습동기 등을 주제로 한 학습전략 워크숍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조선대학교의 경우 학사경고 횟수 1회를 삭감해주는 특전을 주었다.

다른 대학들도 학사경고자 관리 차원에서 학습컨설팅/학습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보통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6>은 국내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lt;표 6&gt; 국내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형태	내용	참여 및 성적 우수자 특전
가천대학교	개별 학습컨설팅	학습전략, 학습 컨설팅 및 피드백	장학금
광운대학교	개별 학습컨설팅	학습전략, 학습 컨설팅 및 피드백	기념품
건양대학교	개인상담	학습유형검사, 대학생활 적응 상담, 학습상담	수강신청 제한 면제
계명대	학습 커뮤니티	선후배 멘토링, 지도교수 상담	운영지원금
동국대	개별 학습컨설팅	학습유형검사, 학습전략, 학습상담	장학금 우수활동 학적부 기록
대구가톨릭 대학교	개인상담/집단상담	심리검사, 개인별 심층상담, 검사결과 단체해석	수강신청 제한 면제 장학금
목원대학교	개별 멘토링	대학생활 적응 상담, 학습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 선발 수강신청 제한 면제
부산외국어 대학교	집단상담 소집단 워크숍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증진 학습유형 검사, 학습전략 워크숍	장학금
선문대학교	소집단 워크숍	학습전략 워크숍	장학금
조선대학교	개인상담/집단상담	심리검사, 개인별 심층상담, 검사결과 단체해석,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학사경고 횟수 1회 삭감
	소집단 워크숍	학습유형 검사, 학습전략 워크숍	학사경고 횟수 1회 삭감
	학습 커뮤니티	선후배 멘토링, 지도교수 상담	운영지원금, 장학금

강선영(2013)에 따르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육제공자의 의사만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시행목적과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조사한 학사경고 지원 프로그램들도 개인 상담을 제외하고 집단의 경우 학업부진 유형별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이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학업부진 요인을 규명하고 부진 요인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Ⅲ. 연구방법

#### A. 연구 절차

본 연구는 A대학 학사경고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학업부진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표 7>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7> 연구절차

학업부진 요인 도출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 학사경고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인터뷰 프로토콜 제작	- 22개 질문 구성
	프로토콜 전문가 검토	- 5개 질문 추가 및 개방형 질문 구성
	프로토콜 Pilot 테스트	- 학사경고자 3명 Pilot 테스트
	1:1 심층 인터뷰	- 학사경고 1회 이상, 10개 단과대학 18명
	인터뷰 진술 분석	- 코딩을 통한 요인 분류
학사경고 요인 도출	- 요인 9개, 구성내용 22개 도출	
↓		
설문지 구성	예비문항 구성	- 선행연구 구성내용 13개 추가
	예비문항 전문가 검토	- 전문가 1인 예비 문항 수정
	설문지 Pilot 테스트	- 학사경고자 3명 Pilot 테스트
	설문지 문항 수정	- 과거형으로 변경, 7개 문항 보완
	설문지 완성	- 총 82문항(인구통계 18개, 경고요인 64개)
↓		
자료 수집	설문조사	- 총 132명(남:79 여:53). 온라인 설문
↓		
자료 분석	기술통계	- 설문 참여자의 기본정보
	요인분석	- 탐색적 요인분석(31문항 제외)
	군집분석	- 계층적 군집분석 4개 군집 도출 - 비계층적 군집분석 4개 유형화
	사례분석	- 부진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례분석
	차이분석	- 부진유형별 차이분석

첫 번째 단계는 학업부진 요인을 도출하는 단계로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참고하여 2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제작된 인터뷰 프로토콜은 전문가 1인의 검토를 통해 5개의 질문이 추가되었고, 추가 질문이 가능하게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완성된 인터뷰 프로토콜은 2017년 1학기 학사경고자 3명을 대상으로 Pilot 테스트를 하였다. Pilot 테스트를 마친 후, A대학에서 2017년 2학기에 5일 과정으로 운영된 학사경고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단과대별 각기 다른 요인이 추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단과대별 1인 이상 총 10개 단과대학에서 18명을 모집하여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술을 분석하여 요인 9개, 22개의 구성내용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지 구성 단계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을 토대로 설문지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요인 9개, 구성내용 22개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비교/분석하였다. 인터뷰에서 도출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주로 뽑히는 13개의 구성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진술문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다. 전문가 1인의 검토와 2017년 1학기 학사경고자 3명의 Pilot 테스트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요인 9개, 구성내용 35개로 총 82문항을 설문으로 완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로, 지방 사립 A대학 학사경고 1회 이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 13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로 설문 참여자의 기본정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학업부진 요인 도출, 군집분석을 통해 학업부진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부합하는 사례를 사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고, 부진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B. 연구대상

### 1. 인터뷰 연구대상

A대학은 K광역시에 위치한 약 2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방 사립 대형대학이다. 이 대학은 16개의 단과대학과 86개의 학부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며, 평점 평균이 4.5점 만점 중 학점 1.65미만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재학 기간에 총 4회의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이 된다. 학사경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원스톱 학생상담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학생상담센터는 자기이해, 스트레스 관리, 시간관리, 방해습관과 관련하여 개인 상담과 5회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습유형검사와 시간관리, 노트 필기,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5회기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다음 학기 성적 1.65이상 취득한 학생의 학사경고 횟수를 1회 삭감해준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사경고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만 하고 있으며 학사경고제도의 기준, 기숙사 및 장학금 지원불가, 전과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제적 등의 정확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A대학의 맥락에서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부진 요인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원스톱 학생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화로 모집하였다. 단과대별 각기 다른 학업부진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사경고 1회 이상 경험자를 단과대학별로 최소 1인 이상 모집하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A대학의 2017년 2학기에 5일 과정으로 운영된 원스톱 학생상담센터 학사경고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을 모집하였다.

### 2. 설문 연구대상

설문 대상은 A대학 학사경고 1회 이상 경험자다. 학사경고 경험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2017년 2학기 경고자가 가장 적합하겠지만, 본 연구는 학사경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재학생에만 제한하지 않고 졸업자, 휴학생을 포함하여 1회 이상 학사경고 경험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 가. 설문 참여자의 기본 정보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 132명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소속

A대학의 경우 2016년 기준 학사경고자가 1286명으로 정원 대비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3%(687명)가 3개 단과대이다(공과대학, 경상대학, IT융합대학). A대학의 단과대학별 학사경고자 분포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참여자의 132명 중 75명(56.8%)가 공과대학, 경상대학, IT융합대학이므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소속단과대학은 <표 8>과 같다.

<표 8> 연구 대상자의 소속단과대학

변수	항목	빈도	%
소속단과대학	공과대학	35	26.5
	경상대학	27	20.5
	IT융합대학	13	9.8
	인문과학대학	10	7.6
	자연과학대학	10	7.6
	법과대학	9	6.8
	외국어대학	9	6.8
	미술대학	5	3.8
	사회과학대학	4	3.0
	체육대학	4	3.0
	보건과학대학	3	2.3
	사범대학	2	1.5
	의과대학	1	0.8
총계		132	100

## (2) 학사정보

참여자의 76.5%가 재학 상태였으며, 현재 학년은 3학년과 4학년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 79명, 여자 53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사정보는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대상자의 학사정보

변수	항목	빈도	%
재학상태	재학	101	76.5
	휴학	25	18.9
	자퇴	2	1.5
	기타	4	3.0
학년	1학년	4	4.0
	2학년	23	22.8
	3학년	40	39.6
	4학년	32	31.7
	졸업유보	1	1.0
	기타	1	1.0
	나이범주	평균	23.58
표준편차		1.91	
성별	남자	79	59.8
	여자	53	40.2

## (3) 학사경고횟수와 경고를 받은 시기

학사경고횟수를 살펴보면, 1회 91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2회 33명(25.0%)순으로 1회 학사경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를 처음 받은 시기를 살펴보면, 1학년 시기가 62.1%(82명)로 가장 많고, 2학년 시기는 31.1%(41명)으로 순으로 많았다.

학과지원동기는 59.1%가 본인선택, 성적에 맞춰가 28.0%, 타인권유가 12.1%로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인 선택에 의해 학과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대학 생활이 개인의 기대와 달랐거나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학사경고횟수와 경고를 받은 시기

변수	항목	빈도	%
학과지원동기	본인선택	78	59.1
	성적에 맞춰	37	28.0
	타인권유	16	12.1
	기타	1	0.8
학사경고횟수	1회	91	68.9
	2회	33	25.0
	3회	7	5.3
	4회	1	0.8
학사경고를 처음 받은 시기	1학년	82	62.1
	2학년	41	31.1
	3학년	9	6.8
	4학년	0	0

#### (4) 휴학경험과 휴학이유

응답자 중 휴학은 65.2%인 86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휴학이유를 살펴보면, 군 휴학은 38명(44.2%), 진로탐색은 21명(24.4%), 학사경고는 11명(12.8%), 휴식은 11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경고직후 휴학을 했냐는 물음에, 83.7%(72명)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는 휴학을 하는 이유가 ‘학사경고’가 주된 원인은 아니나, 휴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사경고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냐는 물음에, 65.2%가 ‘예’, 34.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상반된 결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예’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2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2명, 총 4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졸업을 목표로 노력하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좌절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져 대학에서의 학사경고를 극복하기보단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lt;표 11&gt; 휴학경험과 휴학이유

변수	항목	빈도	%
휴학경험 여부	예	86	65.2
	아니오	46	34.8
휴학횟수	1회	55	64.0
	2회	20	23.3
	3회	9	10.5
	4회	1	1.2
	5회	1	1.2
휴학이유	군 휴학	38	44.2
	진로탐색	21	24.4
	학사경고	11	12.8
	휴식	11	12.8
	아르바이트	3	3.5
	기타	2	2.3
경고 직후 휴학	예	72	83.7
	아니오	14	16.3
경고가	예	86	65.2
학교생활도움	아니오	46	34.8

## C. 연구도구 및 자료 수집

기존의 학사경고 관련 연구는 표본모집의 어려움으로 주로 표본이 작은 질적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양적연구로 이루어진 연구는 학사 데이터만을(출석률, 인터넷 강의 접속시간 등)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경고자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대학과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인터뷰 진술문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A대학의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요인과 부진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1. 인터뷰 프로토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경험과 학업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설문지 개발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단과대별 1인 이상 총 10개 단과대학에서 18명을 모집하였으며, 16개 단과대학중 (보건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치과대학) 총 5개 단과대학은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인터뷰 대상의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구개요와 목적을 설명하며 연구참여 결정계기를 묻는 질문에 연구의 취지와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연구 참여자에게 학사경고 학기 당시의 경험을 충분 떠올릴 시간을 가진 후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제작된 인터뷰 프로토콜로 필요에 의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상황이나 대화의 흐름에 맞게 질문순서를 바꾸어 융통성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오디오 녹음을 진행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1인의 보조원이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과 의도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진술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전화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본 인터뷰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지는 면담 중 추가 질문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제한적인 시간 내에 집중적이며 효율적인 인터뷰가 가능한 반구조화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김철원, 윤혜진, 2013). 인터뷰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던 학사경고 요인들을 바탕으로 2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 프로토콜을 제작하였다. 구성된 질문은 대학 지원계기, 경고 원인의 소재, 고등학교 때 생활태도, 목표/진로, 정서, 교우관계, 생활패턴 등이다.

예비 인터뷰 프로토콜은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경고 이후의 삶에 대해 탐색하는 5개의 질문을 추가하여 최종 27개의 개방형 질문 목록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인터뷰 프로토콜은 2017년 1학기 학사경고자 3명을 대상으로 Pilot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학업부진 요인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완성된 개방형 질문 목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인터뷰에 사용된 개방형 질문 목록

- 
- ◎ 대학/학과/전공 만족도
    -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 대학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게 있나요?
  - ◎ 학사경고 당시 생활습관 및 패턴
    - 학사경고 당시 일주일(하루) 생활을 말해주세요
  - ◎ 학교 적응력
    - 학사경고 당시 학과 생활을 말해주세요
  - ◎ 학사경고 원인의 소재
    - 학사경고를 받게 된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
    - 공부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 학사경고 이후 경험
    - 학사경고 이후 휴학/자퇴를 생각해보았나요?
    - 학사경고 이후 정서/생활/삶은 어땠나요?
  - ◎ 필요한 지원
    -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경고를 안받았을까요?
    - 어떤 지원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 

인터뷰 진술문 분석을 통해 학업부진 요인을 추려내었다.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수차례 받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의 부족, 수업 이해도 부족, 전공과 기대 불일치, 전공과 목표 불일치, 수업 불

만족, 대학 불만족, 학과/전공 불만족, 대학생활 부적응, 음주 습관, 수면 습관, 시험 준비 부족, 학업 무관심, 아르바이트, 가정사, 정서, 연애, 게임 중독, 시간 관리, 교수님의 무관심, 교우 관계, 실패 대처 부족, 학교제도의 이해 부족 및 행정서비스 피해, 총 23가지다. <표 13>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학업부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다고 응답한 요인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

참 여 자	단과대학	성 별	경고 횟수	부진 요인 1	부진 요인 2	부진 요인 3
A	IT융합대학	남	1회	기초 학력 부족	수업 이해도 부족	전공과 기대 불일치
B	IT융합대학	남	1회	아르바이트	수업 불만족	전공과 목표 불일치
C	경상대학	여	1회	음주 습관	수면 습관	시험 준비 부족
D	경상대학	여	1회	학업 무관심	대학생활 부적응	학교 제도 이해 부족
E	공과대학	남	1회	연애	대학 불만족	학과/전공 불만족
F	공과대학	남	1회	아르바이트	대학 불만족	학과/전공 불만족
G	미술대학	여	1회	전공과 목표 불일치	시간관리	음주 습관
H	미술대학	여	2회	수면 습관	교수님의 무관심	교우 관계
I	법과대학	여	2회	전공과 목표 불일치	학업 무관심	대학 불만족
J	법과대학	남	1회	아르바이트	학업 무관심	학교 제도 이해 부족
K	사범대학	여	1회	가정사	정서	전공과 목표 불일치
L	사회과학대학	남	1회	학과/전공 불만족	전공과 목표 불일치	학업 무관심
M	외국어대학	남	2회	아르바이트	수면 습관	학교 제도 이해 부족
N	외국어대학	여	1회	게임 중독	수면 습관	전공과 목표 불일치
O	인문과학대학	여	1회	대학 불만족	학과/전공 불만족	학교 제도 이해 부족
P	인문과학대학	여	3회	아르바이트	학과/전공 불만족	학교 제도 이해 부족
Q	체육대학	남	1회	학교 제도 이해 부족	실패 대처 부족	게임 중독
R	체육대학	남	1회	행정 서비스 피해	학교 제도 이해 부족	대학 불만족

주: 학업부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응답한 요인을 우선순위로 정리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범주를 기준으로 학업부진 요인을 재분류하였다. 범주는 학습 외 특성, 학업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3개, 요인은 대학만족도, 학과/전공 만족도, 생활습관, 정서, 학습역량, 수업이해, 아르바이트, 사회적 관계, 학교 정책 및 서비스가 9개, 구성내용은 총 22개로 분류되었다. 이는 <표 14>와 같다.

<표 14>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한 학업부진 요인 분류

범주	요인	인터뷰 응답
학업 외 특성	대학만족도	학업관심
		학교에 대한 태도
	학과/전공 만족도	전공과 진로 일치
		전공과 기대 일치
	생활습관	음주 습관
		게임 습관
		수면 습관
	정서	우울/불안
	학업 특성	학습역량
시간관리		
실패대처		
수업이해		팀 과제
		기초지식 부족
		수업이해
환경적 특성	아르바이트	생활고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이성관계
		교우관계
	학교 정책 및 서비스	학사제도 인지
행정 서비스		

## 2. 설문지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신속한 응답자료 수집과 코딩시간을 단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문항이 많고 복잡할 경우 응답률이 떨어지고, 가독성 문제로 종이 기반 설문지에 비해 응답자의 문항이해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이유는, 학사경고자들이 출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대상의 특수성과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사경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A대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사경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2만 6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A대학 비공식 SNS 커뮤니티에 연구의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비공식 커뮤니티이지만 공식 커뮤니티와는 달리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 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된 곳이다. 커뮤니티 운영자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냈고 약 7일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1차 모집 시, 학사경고자임을 인증하는 성적표 인증을 제시하여, 참여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2차 모집 시, 성적표 인증을 없애고, 비공식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일반 대학생들에게 주변 친구들 중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유도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Survey Monkey로 제작된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설문 완료 후 감사의 의미로 설문 대상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기간은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13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된 설문지의 학사경고에 대한 경험과 학사정보 분석을 통해 이 중 학사경고자가 아닌 응답 3건을 제외한 132명(남자 79명, 여자 53명)의 데이터를 최종 선별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학업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인터뷰에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학업부진의 주요인으로 뽑히는 요인을 추가로 삽입하고 수정하여 설문지의 예비 문항을 <표 15>와 같이 구성하였다.

예비 문항은 크게 범주 3개, 요인 9개, 구성내용 35개로 학업 외 특성 24문항, 학업 특성 20문항, 환경적 특성 20문항, 인구 통계학적 질문 18문항을 포함한 총 8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일부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 설문 대상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에서의 “하나의 과목이 망치니 하기 싫어져 다른 시험도 망쳤다”, “내 과제는 안했어도 팀원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팀 과제는 열심히 했다”, “교수님이 어차피 계속 나와도 F라고 한 후부터 안 나갔다” 등 학생 진술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설문지는 “학사경고 당시의 경험을 잘 떠올려 응답해주세요”라는 문장을 매 페이지에 삽입하여 학사경고 당시의 학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고,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최종 설문지는 전문가 1인의 검토와 2017년 1학기 학사경고자 3명의 Pilot 테스트를 통해 완성되었다. Pilot 테스트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진행해야 하는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반영시킨다고 하여 과거형으로 동사를 수정하였고, 문항의 의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7개 문항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중, 1개 문항은 서술형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학교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경고에 이르지 않았을까?’에 대해 총 16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으로는 ‘학사경고 제도의 상세한 안내(받게 되는 불이익 등)’가 8명, ‘교수의 관심’이 2명, ‘개인의 태도 문제’가 2명이며, 소수의견으로는 ‘수업 방식의 변화’,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 ‘기초지식 보완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다.

&lt;표 15&gt;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요인	구성내용	출처
대학만족도		학업관심	인터뷰
		학교에 대한 태도	인터뷰
		전공과 진로 일치	인터뷰
		전공과 기대 일치	인터뷰
학과/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	남영옥, 이대형(2016)
		수업 만족도	서민원(2008), 이지선(2013)
학업 외 특성	생활습관	음주 습관	인터뷰
		게임 습관	인터뷰
		수면 습관	인터뷰
정서		스트레스 대처	인터뷰, 김정희, 이장호(1988)
		우울/불안	인터뷰
		자기효능감	김아영, 박인영(2011)
		자아존중감	전병재(1974)
학업 특성		회복탄력성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학습동기	남영옥, 이대형(2016)
		시험준비	인터뷰
		시간관리	인터뷰, 남영옥, 이대형(2016)
		공부습관	정미경(2005), 박성미(2009)
		실패대처	인터뷰
		팀 과제	인터뷰
		학습방법/전략	남영옥, 이대형(2016)
		학사정보 수집능력	남영옥, 이대형(2016)
		시험불안	이훈병(2016)
수업이해		기초지식 부족	인터뷰
		수업이해	인터뷰
		학습내용이해노력	이훈병(2016)
아르바이트		생활고	인터뷰, 이훈병(2016)
		경제활동	인터뷰
환경적 특성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인터뷰, 장성화, 진석언(2009)
		교수와의 관계	인터뷰, 이훈병(2016)
		이성관계	인터뷰
		교우관계	인터뷰, 이훈병(2016)
학교 정책 및 서비스		학사제도 인지	인터뷰
		행정 서비스	인터뷰
		학습지원	김창민, 박인우(2012)



## 가. 학업 외 특성

### (1) 대학만족도

대학만족도는 학업관심도와 학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2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5문항이다. 학업관심도 문항은 ‘나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다’이고, 학교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은 ‘지금 다니는 대학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다’, ‘재수를 생각 중이었다’, ‘지방 대학에 대한 낮은 인식이 싫었다’, ‘대학에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다’로 구성하였다.

### (2) 학과/전공 만족도

학과/전공 만족도는 전공과 진로 일치, 전공 만족도, 전공과 기대 일치, 수업 만족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4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5문항이다. 전공과 진로 일치, 전공과 기대 일치에 대한 문항은 ‘전공과 내가 추구하는 진로는 일치했다’, ‘전공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로 구성하였다. 전공 만족도는 남영옥, 이대형(2016)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전공이 나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았다’로 제시했다. 수업 만족도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출석하지 않았다’ 문항은 인터뷰를 도출된 진술문으로 구성하였고, ‘수업내용은 흥미롭고, 주의집중이 잘되었다’는 문항은 서민원(2008), 이지선(2013)이 개발한 문항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 (3) 생활습관

생활습관은 음주 습관, 게임 습관, 수면 습관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3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3문항이다. 음주 습관 문항은 ‘나는 늦은 밤까지 술을 자주 마셨다.’, 게임 습관 문항은 ‘나는 늦은 밤까지 매일 게임을 했다.’, 수면 습관 문항은 ‘새벽에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로 구성하였다.

#### (4) 정서

정서는 스트레스 대처, 우울/불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5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11문항이다. 정서와 관련된 문항은 스트레스 대처, 우울/불안의 2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문항은 김정희, 이장호(1988)가 개발한 문항, 자기효능감 문항은 김아영, 박인영(2011)이 개발한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은 전병재(1974)가 개발한 문항,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가 개발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나. 학업 특성

#### (1) 학습역량

학습역량은 학습동기, 시험준비, 시간관리, 공부습관, 실패 대처, 팀 과제, 학습방법/전략, 학사정보 수집능력, 시험불안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9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17문항이다. 학습역량과 관련된 문항은 시험준비, 시간관리, 실패대처, 팀 과제 4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문항은 남영옥, 이대형(2016)과 김용래(2000)이 개발한 문항, 공부습관 문항은 정미경(2005)와 박성미(2009)가 개발한 문항, 시간관리, 학습방법/전략, 학사정보 수집능력 문항은 남영옥, 이대형(2016)이 개발한 문항, 시험불안 문항은 이훈병(2016)가 개발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수업이해

수업이해는 기초지식 부족, 수업이해, 학습내용이해노력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3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3문항이다. 학습내용이해노력 문항은 이훈병(2016)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남은 2문항은 인터뷰 진술문을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다. 환경적 특성

### (1)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생활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2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3문항이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항은 이훈병(2016)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2문항은 인터뷰 진술문을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2)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이성관계, 교우관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4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13문항이다. 사회적관계와 관련된 문항은 부모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이성관계, 교우관계 총 5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머지 8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은 이훈병(2016)과 장성화, 진석언(2009)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 (3) 학교정책 및 서비스

학교정책 및 서비스는 학사제도 인지, 행정 서비스, 학습지원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3가지 구성내용으로 총 4문항이다. ‘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는 문항은 김창민, 박인우(2012)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3문항은 인터뷰 진술문을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3. 학업부진 요인 도출

변수들 중 불필요한 변수나 중요도가 낮은 것은 제외하고 상관도가 높은 변수들을 모아 요인으로 묶거나 구성된 변수간의 관계가 맞는지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참여자 132명의 데이터로 기본 학사정보를 제외한 학업부진 요인 6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는 3개, 학업부진 요인 9개로 학업 외 특성 24문항, 학업 특성 20문항, 환경적 특성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가 20개가 넘기 때문에 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요인 수만큼 각 요인을 묶어 줌으로써 변수들을 단순화하였다. 이후 요인구조가 뚜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를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다. 구형성 검정은 KMO(Keiser-Meyer-Olkin)의 측도와 Bartlett의 검정을 사용하였다. 요인들을 신뢰성 있게 측정했는지를 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을 실시하였다.

KMO는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의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로 값이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김계수, 2007). Bartlett검정은 요인분석시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인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대각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강현철, 2013).

신뢰도(Cronbach's  $\alpha$ )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김계수, 2007). 이하는 각 요인별 KMO, Bartlett, 신뢰도 값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 가. 학업 외 특성

학업 외 특성의 변수들을 단순화하여 분석한 결과 학과/전공 만족도, 정서, 대학만족도, 생활습관으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공통성이 낮은 요인 정서 11개 문항 중 7개 문항, 대학만족도 5개 문항 중 2개 문항, 생활습관 3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제외되었다. 먼저 KMO의 값이 0.762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 Bartlett값은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신뢰도는 학과/전공만족도와 정서가 각각 0.757와 0.719으로 보통, 대학만족도와 생활습관은 각각 0.625 와 0.662로 낮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표 16>과 같다.

<표 16> 학업 외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문항	요인명				Cronbach's Alpha	
	학과/전공 만족도	정서	대학만족도	습관		
학과/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	.862	.028	-.082	-.100	.757
	전공과 진로 일치	.790	-.052	-.138	-.093	
	수업만족도	.660	.298	.068	.167	
	전공과 기대 일치	.596	.010	.092	.297	
	수업만족도	.567	.036	.155	.210	
정서	자기효능감	.093	.782	-.012	-.211	.719
		.086	.750	-.028	-.242	
	스트레스 대처	.043	.741	-.109	.198	
대학만족도	학교에 대한 태도	.002	.591	-.024	.013	.625
		-.134	.012	.809	-.102	
생활습관	수면 습관	.001	-.141	.761	.180	.662
	게임 습관	.450	-.039	.642	-.054	
	아이젠값	.062	.019	-.008	.896	
	변량	.226	-.359	.033	.559	
	누적 변량	2.773	2.318	1.723	1.482	
		19.808	16.555	12.308	10.588	
		19.808	36.363	48.671	59.25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6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512.248(df=91, p<0.01)^*$

\* $p<0.01$

## 나. 학업 특성

학업 특성의 변수들을 단순화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 역량, 수업이해로 2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공통성이 낮은 요인 학습 역량 17개 문항 중 9개 문항, 수업이해 3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제외 되었다. 먼저 KMO의 값이 0.776이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 Bartlett값은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신뢰도는 학습 역량이 0.836, 수업이해가 0.810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표 17>과 같다.

<표 17> 학업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문항	요인명		Cronbach's Alpha
	학습 역량	수업이해	
학습역량	공부습관	.791	.836
	학습방법/전략	.756	
	공부습관	.739	
	학습동기	.731	
	학사정보 수집능력	.690	
	학습방법/전략	.658	
	시간관리	.629	
	학습동기	.571	
수업이해	기초지식 부족	.039	.810
	수업이해	.092	
아이겐값	3.920	1.748	
변량	39.200	17.481	
누적 변량	39.200	56.681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7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sup>2</sup>=505.097(df=45, p<0.01)\*

\*p<0.01

## 다. 환경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변수들을 단순화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학교 정책 및 서비스, 아르바이트로 3가지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공통성이 낮은 요인 사회적 관계 13개 문항 중 10개 문항, 정책서비스 4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제외되었다. 먼저 KMO의 값이 0.712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 Bartlett값은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신뢰도는 사회적 관계가 0.808로 높고, 학교 정책 및 서비스와 아르바이트가 0.742와 0.708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표 18>과 같다.

<표 18> 환경적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문항	요인명			Cronbach's Alpha
	사회적 관계	정책 서비스	아르바이트	
사회적 관계	교수와의 관계	.859	.013	.808
		.853	.152	
		.834	.110	
학교 정책 및 서비스	학습지원	.118	.866	.742
		.113	.857	
	학사제도 인지	.039	.698	
아르바이트	생활고	.008	-.130	.708
		-.013	-.079	
	경제활동	.101	.111	
	아이겐값	2.202	2.043	1.967
	변량	22.016	20.427	19.671
	누적 변량	22.016	42.443	62.115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1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sup>2</sup>=410.645(df=45, p<0.01)\*

\*p<0.01

#### 4. 학업부진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학업 외 특성 중 정서는 총 11개 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7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그 결과 스트레스대처와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만 남았다. 따라서 요인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정서를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한다.

환경적 특성 중 사회적 관계는 총 13개 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10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그 결과 교수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만 남았다. 학교 정책 및 서비스는 총 4개 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1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그 결과 학사제도 인지와 학습지원안내와 관련된 문항만 남았다. 따라서 요인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교수와의 관계로, 학교 정책 및 서비스를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로 명명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 외 특성은 생활습관(M=3.28, SD=1.04)이 좋지 않고, 학과/전공만족도(M=3.21, SD=.8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특성의 학습역량(M=3.49, SD=.71)이 부족하고 수업이해(M=3.31, SD=1.12)도 낮은 편이며, 환경적 특성의 교수와의 관계(M=3.46, SD=.94)가 좋지 않고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M=3.68, SD=.86)에 대한 인지가 낮았다.

<표 19> 학업부진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구분	요인	M	SD
	학과/전공만족도	3.21	.82
학업 외 특성 (M=3.05 SD=.48)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2.89	.87
	대학만족도	2.83	.97
	생활습관	3.28	1.04
학업 특성 (M=3.40 SD=.71)	학습역량	3.49	.71
	수업이해	3.31	1.12
환경적 특성 (M=3.24 SD=.59)	교수와의 관계	3.46	.94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3.68	.86
	아르바이트	2.59	1.07



## 5. 학업부진 요인별 집단간 차이 분석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성별, 소속계열별, 학사경고 횟수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의 표본평균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한가지 요인에 대한 2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을 동시에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신민철, 2010).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성별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경고를 받은 학년과 계열별 차이는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 Schéffe 를 사용하였다.

### 가. 성별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는 생활습관이 남자(M=3.50, SD=.72), 여자(M=2.94, SD=.92)로 남자가 생활습관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125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 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0>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

요인	남자		여자		t	p
	M	SD	M	SD		
학과/전공만족도	3.23	.82	3.20	.82	.209	.835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2.78	.87	3.04	.85	-1.699	.092
대학만족도	2.84	.95	2.82	1.00	.092	.927
생활습관	3.50	1.06	2.94	.92	3.125	.002*
학습역량	3.50	.72	3.46	.69	.357	.722
수업이해	3.31	1.21	3.30	.99	.041	.967
교수와의 관계	3.51	.98	3.38	.87	.798	.426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3.73	.83	3.60	.90	.871	.385
아르바이트	2.49	1.11	2.74	.99	-1.336	.184

\*p<0.05

## 나. 소속계열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소속계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단과대별 차이를 보려고 하였으나 참여자 비율이 맞지 않아, 학문계열별(인문계열, 자연계열, 공과계열, 예체능계열)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계열별 소속 단과대학은 인문계열은 경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외국어대학, 인문과학대학이며, 자연계열은 보건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며, 공과계열은 IT융합대학, 공과대학이며, 예체능계열은 미술대학, 체육대학이다.

교수와의 관계 요인을 살펴보면, 인문계열(M=3.28), 자연계열(M=3.33), 공과계열(M=3.78), 예체능계열(M=3.11)로 평균 값이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3.200이고 유의확률이 0.026이므로 교수와는 관계는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소속계열별 차이

요인	소속계열	M	SD	F	p	사후검증
학과/전공만족도	인문계열	3.18	.89	.959	.415	---
	자연계열	3.26	.46			
	공과계열	3.33	.79			
	예체능계열	2.84	.84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인문계열	2.81	.93	.407	.748	---
	자연계열	2.96	.76			
	공과계열	2.98	.77			
	예체능계열	2.81	1.17			
대학만족도	인문계열	2.83	1.10	.079	.971	---
	자연계열	2.90	.82			
	공과계열	2.84	.86			
	예체능계열	2.70	.89			
생활습관	인문계열	3.20	1.07	1.177	.321	---
	자연계열	2.93	1.00			
	공과계열	3.44	.97			
	예체능계열	3.50	1.20			
학습역량	인문계열	3.52	.69	.821	.489	---
	자연계열	3.63	.54			
	공과계열	3.37	.74			
	예체능계열	3.63	.82			

요인	소속계열	M	SD	F	p	사후검증
수업이해	인문계열	3.29	1.06	1.578	.198	---
	자연계열	3.14	.91			
	공과계열	3.50	1.25			
	예체능계열	2.67	.97			
교수와의 관계	인문계열	3.28	.97	3.200	.026*	3>1,2
	자연계열	3.33	.82			
	공과계열	3.78	.92			
	예체능계열	3.11	.53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인문계열	3.65	.88	.080	.971	---
	자연계열	3.64	.89			
	공과계열	3.70	.87			
	예체능계열	3.78	.65			
아르바이트	인문계열	2.64	.98	.430	.732	---
	자연계열	2.45	1.24			
	공과계열	2.63	1.18			
	예체능계열	2.26	.80			

\*p<0.05, 1=인문계열, 2=자연계열, 3=공과계열, 4=예체능계열

#### 다. 학사경고 횟수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학사경고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4회 이상이 1명이므로 사후 검증을 위해 3회 이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아르바이트 요인을 살펴보면, 1회 이상(M=2.42), 2회 이상(M=3.06), 3회 이상(M=2.54)로 평균 값이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4.529이고 유의확률이 0.013이므로 학사경고 횟수에 따른 아르바이트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2> 학업부진 요인에 대한 학사경고 횟수 차이

요인	학사경고 횟수	M	SD	F	p	사후검증
학과/전공만족도	1회	3.16	0.87	1.400	.250	---
	2회	3.27	0.67			
	3회 이상	3.65	0.58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1회	2.91	0.85	.128	.880	---
	2회	2.83	0.96			
	3회 이상	2.81	0.88			

요인	학사경고 횟수	M	SD	F	p	사후검증
대학만족도	1회	2.86	1.02	.227	.797	---
	2회	2.74	0.86			
	3회 이상	2.92	0.71			
생활습관	1회	3.18	1.09	2.387	.096	---
	2회	3.61	0.85			
	3회 이상	3.00	0.96			
학습역량	1회	3.46	0.72	.414	.662	---
	2회	3.58	0.72			
	3회 이상	3.39	0.49			
수업이해	1회	3.29	1.10	.031	.969	---
	2회	3.35	1.25			
	3회 이상	3.31	1.00			
교수와의 관계	1회	3.40	0.97	.561	.572	---
	2회	3.58	0.89			
	3회 이상	3.63	0.84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1회	3.63	0.88	.821	.442	---
	2회	3.84	0.75			
	3회 이상	3.54	0.99			
아르바이트	1회	2.42	1.06	4.529	.013*	2>1
	2회	3.06	0.97			
	3회 이상	2.54	1.11			

\*p<0.05, 1=1회, 2=2회, 3=3회 이상

## D.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A대학 대학생의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4 프로그램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여러 개의 변수들 중 불필요한 변수나 중요도가 낮은 것은 제외하고 상관도가 높은 변수들을 모아 요인으로 묶거나 구성된 변수 간의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집단간 차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A대학의 학사경고자는 어떤 학업부진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4 프로그램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사람 중심적 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료들에 대해 측정변수들을 이용해 유사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분석기법이다(성지은, 김창호, 정진구, 2017). 군집분석의 장점으로는 데이터 내부구조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의미있는 자료구조를 찾을 수 있는 탐색적 기법이라는 점, 거리에 대한 정의만 잘 내리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분석방법이 사전정보를 거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관찰치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초기 군집수의 결정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고, 결과해석의 어려움이 있다(김윤진, 2005). 군집분석은 변인과 변인간의 관련성 또는 보편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접근법인 변인 중심적 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과는 달리 유사한 개인의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군집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김명선 외, 2014; 박민지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 중심적 분석방법에 기반하여 유사한 학업부진 특성을 가진 집단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은 군집화 유형에 따라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K-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은 가까운 대상끼리 서로 묶어서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고,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놓고 거리에 맞게 구간별 대상을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이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군집 수를 찾고,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최종 군집을 확인하는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 A.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 분류

학업부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총 9개의 요인으로 독립변수로 넣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하였다. 각 군집의 빈도분석과 워드법(ward method)을 이용한 덴드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워드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의미있게 군집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Kane & Trochi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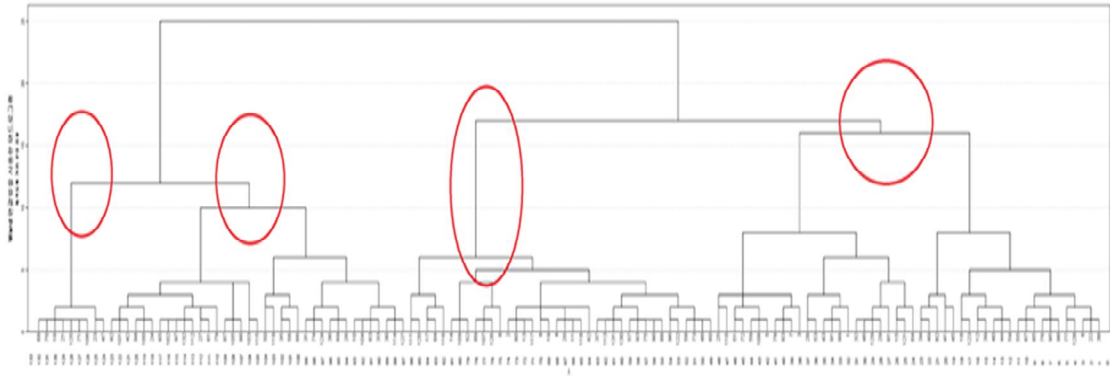
먼저 2개 군집을 살펴보면, 군집1은 86명(65.2%), 군집2는 46명(34.8%)로 나타났다. 3개 군집을 살펴보면, 군집1은 48명(36.4%), 군집2는 18명(13.63%), 군집3은 66명(50.0%)으로 나타났다. 4개 군집을 살펴보면, 군집1은 33명(25%), 군집2는 46명(34.85%), 군집3은 22명(16.67%), 군집4는 31명(23.48%)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적절한 군집의 수는 빈도가 가장 적절하게 분포되어있는 4개로 확인되었다. <그림 1>은 워드법을 이용한 덴드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표 23> 군집 수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항목	빈도	%
2개 군집	군집1	86	65.2
	군집2	46	34.8
3개 군집	군집1	48	36.35
	군집2	18	13.63
	군집3	66	50.02
4개 군집	군집1	33	25.00
	군집2	46	34.85
	군집3	22	16.67
	군집4	31	23.48

<그림 1> 계층적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의 수 결정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4가지 유형이 적절한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도출된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표 24>와 같이 군집분석 결과, 요인들의 점수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1은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군집 2는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 3은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군집 4는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요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차이는 군집별로 유의하다고 나타났고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집단 간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인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다변량 분산분석의 유의성을 판단할 때, Pillai's trace, Wilks's Lambda, Hotelling Lawley trace, Roy's greatest root 값의 통계량을 사용한다. 통계적 검증력은 Pillai's trace > Wilks's Lambda > Hotelling Lawley trace > Roy's greatest root의 순서로 줄어든다(성지은, 김창호, 정진구, 2017). 분석 결과 4가지 값 모두 유의하므로 9개의 요인이 집단을 결정하는 데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4> 군집 분류

요인명	군집명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사후검증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생활습관 조절 미흡형			
전공만족도		3.67	2.64	3.61	3.32	17.926	1,3,4>2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2.70	2.95	3.61	2.48	9.600	3>1,2,4
대학만족도		3.63	2.44	2.52	2.80	13.935	1>2,3,4
생활습관		2.95	2.59	3.86	4.23	32.497	3,4>1,2
학습역량		3.28	3.13	3.88	3.97	16.097	3,4>1,2
수업이해		3.47	2.71	4.61	3.10	22.189	3>4,1>2
교수와의 관계		3.87	2.83	4.14	3.46	17.550	3>4, 1,3>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3.62	3.39	4.24	3.76	5.603	3>1,2
아르바이트		2.95	2.36	2.98	2.28	4.140	---

Pillai's trace=14.377\*  
 Wilks's Lambda=15.106\*  
 Hotelling Lawley trace=15.583\*  
 Roy's greatest root=25.395\*

\*p<0.01, 1=군집 1, 2=군집 2, 3=군집 3, 4=군집 4



각 군집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점수가 높은 요인 순서대로 배치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각 군집을 대표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 ‘교수와의 및 전공 불만족형’은 교수와의 관계, 전공 및 대학 만족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에 대한 안내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집 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은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학습역량, 스트레스 대처 및 자기효능감,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집 3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은 수업이해,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 학습역량이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집 4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은 생활습관, 학습역량,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4가지 군집은 교수와의 관계와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가 모든 군집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모든 군집의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교의 관심과 지지는 대학생들 학사경고에 이르지 않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표 25> 군집별 요인 평균점수 순위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군집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군집 생활습관조절 미흡형
1순위	교수와의 관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수업이해	생활습관
2순위	전공만족도	학습역량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학습역량
3순위	대학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및 자기효능감	교수와의 관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4순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	학습역량	교수와의 관계

## B.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의 특성

학업부진 요인에 따라 학업부진 유형이 4가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각 군집의 요인별 특성에 맞게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으로 명명하였다. 학업부진 유형의 특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 군집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사전 인터뷰 단계의 연구 참여자 진술문이다.

### 군집 1: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군집 1은 전체 132명 중 25.0%인 33명으로, 교수와의 관계, 대학 및 전공 만족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다른 군집에 비해 사회적 관계와 전공 및 대학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전공 및 대학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 군집 1의 학과 지원 동기를 살펴본 결과 33명 중, 15명이 본인선택, 14명이 성적에 맞춰, 4명이 타인권유로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했음에도 대학/전공 불만족으로 학업에 부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전 인터뷰 참여자 O와 H의 사례를 통해서 군집 1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교수님 상담도 하고 알아봤었는데, 교수님들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업은 없으니까 복수전공하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대학에 왜 왔나, 그러다 보니 계속 불만이 쌓이고 A대학이 싫어져서 공부를 더 하기가 싫었어요. 도움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다녀야 하나 싶어서 자퇴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전공을 바꾸면 좀 나올 거 같아서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 학사경고를 받으면 학점 제한으로 전과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만은 계속 커졌어요. (참여자 O 사전 면담자료)

“교수님이 제가 학교를 안 나오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면박만 주시고. 교수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으면 저는 진짜 더 잘 나왔을 것 같거든요?” (참여자 H 사전 면담자료)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거나 타인권유로 지원한 경우에 목표와 전공의 불일치의 이유가 크다는 것을 참여자 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고 싶었던 고고학과에 수시로 붙었는데, 부모님이 굶어 죽기 딱 좋은 학과라고 다른 과를 계속 권유하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왔는데, 안 그래도 억지로 왔는데 행정 복지학과에서 한 학기에 10점이 영어수업이었어요.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안 나갔어요”(참여자 L 사전 면담자료)

위 사례들과 군집의 특성을 통해 해석한 군집 1은, 입학 전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안 맞거나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수업에 흥미를 잃었고, 이를 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수와의 상담 등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아 교수 또는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권유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여, 결국은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 군집 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 2는 전체 132명 중 34.8%인 46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학습역량,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전 인터뷰 참여자 D의 사례를 통해서 군집 2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는 선배도 딱히 없고, 과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알려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 같아요”(참여자 D 사전 면담자료)

학사경고가 자신의 대학 생활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된 사례는 참가자 F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저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최하분기 받거든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는데, 학교 한번 받고 나니까 국가 장학금 대출도 못 받고 기숙사 신청도 안됐어요. 그냥 신청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걸 안내받은 것도 전혀 없었구요. 타지에서 왔는데 생활은 늘 어렵고, 근데 학사경고 받고 나서 다음 학기부터 더 힘들었던 게, 원룸이랑 학기 등록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경고를 또 받았어요.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참여자 F 사전 면담자료)

위 사례와 군집의 특성을 통해 해석한 군집 2는, 학사경고와 학습지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학습역량이 좋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지만 학습역량은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전공 및 대학 만족도, 생활습관, 수업이해 등의 대부분 요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집 2는 정상적인 학습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사경고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업에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군집 3: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군집 3은 전체 132명 중 16.7%인 22명으로, 수업이해,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 학습역량이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요인이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공만족도와 정서, 생활습관도 좋지 않다고 나타났는데, 의외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22명 중 81.8%에 해당하는 18명이 공과대학, 경상대학, IT융합대학 소속이고 공과대학, 경상대학, IT융합대학은 기초수학 또는 통계, 물리학 등에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과라는 점도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사전 인터뷰 참여자 A의 사례를 통해서 군집 3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이라던지 물리학을 잘 못했어요. 제가 전문계를 나와서 기초 수학이 부족한데, 전공은 기초 수학이 꼭 필요한 과목들이예요. 교수님은 당연히 너네 다 알고 있지? 이런식으로 가르쳐버리시니까, 이해하기 힘들니까 흥미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진도는 나가고 앓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암기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좀 하면 괜찮은데 전공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까 흥미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학원을 다녀볼까 알아보기도 했어요.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너네들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고 무조건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교수님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입학 전에 기초학력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선택 참여였고 필수참여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여기 와서 다른 과 다녔던 친구들도 같은 이유로 자퇴한 친구가 3명은 되요. 어차피 성적도 메꾸기 힘들고 졸업해도 학점도 낮으니 돈이나 별자”(참여자 A 사전 면담자료)

위 사례와 군집의 특성을 통해 해석한 군집 3은,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이를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교수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수의 무관심이나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미인지로 전공 기초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지속적 학습에 문제가 생겼고 전공만족도와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생활습관까지 영향을 미쳐 학업에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군집 4: 생활습관조절 미흡형

군집 4는 전체 132명 중 23.5%인 31명으로, 생활습관, 학습역량,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집 4는 생활습관조절 미흡으로 학업에 영향을 받아 학업에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은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고를 받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고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 인터뷰 참여자 H, N과 C의 사례를 통해서 군집 4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도, 잠을 너무 못 참아서 학교를 많이 안 나갔어요. 결국, 출결 일수 부족해서 1학년 유급을 하거나 자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잠을 거의 4시에 자는데 대학에 와서는 더 자유로우니까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경고 계속 받고”(참여자 H 사전 면담자료)

“PC방에서 살았어요. 2시나 3시까지 게임하고 새벽 5시쯤에 자고, 수업은 1학년이니까 1교시에 많았는데, 못가죠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학교에 안 갔어요. 시험은 거의 다 봤는데, 결석이 3번 있으니까 시험 봐도 출석 인정이 안되니까 경고받았어요” (참여자 N 사전 면담자료)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는 게 습관이 돼서 시험 대비도 못 하고, 시험 보는 시간도 잘못 알아서 안보고, 그래도 수업은 안 빠지긴 했는데 전공이 절대평가가 많아서, F를”. (참여자 C 사전 면담자료)

위 사례와 군집의 특성을 통해 해석한 군집 4는, 습관조절 미흡으로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교수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 받으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학업에 부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군집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이 가장 좋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였거나 경고의 원인을 외적요인에 귀인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군집 4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자 중 2회 이상 학사경고자의 42%가 속해 있다는 것이다. 습관조절 미흡으로 인해 경고를 받게 되면 습관이 개선되기 전까지 경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군집별로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했지만, 공통적으로 교수와의 관계와 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가 학업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주로 대학에서는 학사경고 학생에게 지도 교수 면담이나 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었거나 학사경고나 학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수와 학교의 지지와 관심으로 바탕으로 군집 유형별 학업부진 요인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C. 대학생 학업부진 유형별 차이

분류된 군집유형이 성별, 소속계열, 학사경고 횟수 분포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군집 3(전공 기초지식 부족형)과 군집 4(생활습관조절 미흡형)에 남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9.474$ ,  $p=.024$ ). 소속계열은 인문계열과 공과계열이 군집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사경고 횟수는 1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군집 2(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가 38명 8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사경고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6> 학업부진 유형별 차이

변인	군집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총계	$X^2$ (p)
		교수와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생활 습관조절 미흡형		
성별	남자	11.4% (n=15)	18.2% (n=24)	12.1% (n=16)	18.2% (n=24)	59.8% (n=79)	9.474* (.024)
	여자	13.6% (n=18)	16.7% (n=22)	4.5% (n=6)	5.3% (n=7)	40.2% (n=53)	
소속 계열	인문계열	13.6% (n=18)	17.4% (n=23)	4.5% (n=6)	10.6% (n=14)	46.2% (n=61)	14.812 (.096)
	자연계열	3.0% (n=4)	3.0% (n=4)	1.5% (n=2)	3.0% (n=4)	10.6% (n=14)	
	공과계열	8.3% (n=11)	10.6% (n=14)	10.6% (n=14)	6.8% (n=9)	36.4% (n=48)	
	예체능계열	0.0% -	3.8% (n=5)	0.0% -	3.0% (n=4)	6.8% (n=9)	
학사경고 횟수	1회	15.9% (n=21)	28.8% (n=38)	10.6% (n=14)	13.6% (n=18)	68.9% (n=91)	7.287 (.295)
	2회	6.8% (n=9)	4.5% (n=6)	5.3% (n=7)	8.3% (n=11)	25.0% (n=33)	
	3회 이상	2.3% (n=3)	1.5% (n=2)	0.8% (n=1)	1.5% (n=2)	6.1% (n=8)	

\* $p < 0.05$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방에 위치한 4년제 사립 A대학 학업부진 요인을 탐색하고, 학업부진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업부진 요인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과대별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해 학사경고 당시의 경험을 확인하고 학업부진 요인을 도출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업부진 요인과 선행연구의 요인을 토대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상관도가 높은 변수들을 간추렸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군집분석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각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9개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대학만족도, 생활습관, 학습역량, 수업이해, 교수와의 관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그 중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습역량, 교수와의 관계, 수업이해, 생활습관, 학과/전공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연구(이용진 외, 2017)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자기조절능력, 사회적관계가 학사경고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학업부진 요인의 집단간(성별, 학년, 단과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요인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가 생활습관이 더 좋지 않았다. 경고를 받은 학년은 생활습관과 학습역량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단과대학별 차이는 교수와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132명을 9개 요인을 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군집들은 특징에 맞게 군집 1은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군집 2는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 3은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군집 4는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군집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군집 1은 25%, 군집 2는 35%, 군집 3은 17%, 군집 4는 23%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다음으로 각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의 특징이 되는 요인은 “교수와의 관계”, “전공만족도”, “대학만족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



내”였다. 즉, 입학 전 기대와는 달리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안 맞거나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수업에 흥미를 잃었거나, 이를 극복하고자 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하였으나 결국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해, 교수 또는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불만이 커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했거나, 타인 권유로 대학 진학을 한 경우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학습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권혁재, 2012) 일치된다. 기존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본 연구는 본인선택에 의해 대학을 진학했음에도 학업에 부진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군집 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의 특징이 되는 요인은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학습역량”,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교수와의 관계”였다. 군집 2는 다른 군집에 비해 전공 및 대학만족도, 생활습관, 수업이해 등 대부분 요인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군집 2는 정상적인 학습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사경고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업에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은 학사경고나 제도에 대해 통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안내하는 내용도 ‘학사경고 여부’ 정도가 대부분이고, 학사경고를 받은 후에야 학사경고 기준학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에 대한 학칙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와(전호정, 2017)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참여자가 군집 2에 속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군집 3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의 특징이 되는 요인은 “수업이해”,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 “학습역량”이었다. 군집 3은 대학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으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교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수의 무관심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미인지로, 학업부진을 겪으면서 전공만족도와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생활습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 3은 경고를 받은 직후 휴학을 했다는 응답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이 휴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부족과 어려운 수업 내용이었으며, 중도포기 혹은 휴학을 고민하였다는 연구 결과와(권혁재, 2012) 일치한다.

군집 4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의 특징이 되는 요인은 “생활습관”, “학습역량”,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 “교수와의 관계”였다. 군집 4는 생활습관조절 미흡으로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고, 교수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학업에 부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부족으로 술자리, 게임, 수면 습관 등으로 인해 학습시간 결손, 학업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장애경 외, 2013)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군집 4의 다른 특징으로 2회 이상 학사경고자가 42%라는 것을 볼 때, 생활습관조절 미흡으로 인해 경고를 받게 되면 생활 습관이 개선되기 전까지 누적경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부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본 총 4개의 군집 유형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국고사업에 선정된 국내 10개 대학 학사경고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개인 상담을 제외하고는 부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도 관리 차원에서 학습컨설팅/학습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학업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보통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업부진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개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Boretz(2012)에 따르면 학사경고생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개별 맞춤형태일수록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군집 1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을 위해 입학 전 혹은 신입생 학기초에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이해하고 대학 생활목표를 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군집 1은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고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커지고 학업부진으로 이어져 학사경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에 맞춰 대학에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선택에 의해 온 경우에도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생길 경우 학업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과 진로지도로 전공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야하며, 대학은 적성과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전공 선택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군집 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을 위해 대학과 학과의 주도로 학사경고제도를 포함한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학사경고 제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포함을 시키거나 수업 평가 문항으로 넣는 등, 제도에 대한 숙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 군집 2는 정상적인 학습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사경고 기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여 학업에 부진하게 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도 학사제도와 학습지원에 대한 안내를 필수 요소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군집 3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은 수업 방식과 전공별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집 3은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수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학업에 부진하게 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맞는 수업 양식을 사용할

때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고영남, 2005; 최임숙, 2007)를 토대로 철저한 학습자 분석을 통해 교안을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전공 기초지식을 보충해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있는 학습전략 프로그램이 아닌, 학문 분야의 특성과 내용 특성을 고려해 전공교육 맞춤형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학과별로 개발해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을 입학하기 전 다수의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아들일 학문적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입학하여(Tinnesz, Ahuna, & Kiener, 2006), 전공 기초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2000년에 공립 2년제 대학의 98%와 공립 4년제 대학의 80%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보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00) 전공교육 맞춤형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군집 4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을 위해 학생들이 대학의 자율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습관개선이나 시간관리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군집 4는 늘어난 자유에 대한 대처를 못 했거나, 자신의 생활습관 조절의 어려움이 학업부진으로 이어졌고 학사경고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되며 요구받은 다양한 변화 대처에 적응을 못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둘째, 교수와 학교가 학업부진 대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를 신입생때부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사경고자를 위한 A대학의 지원은 학습커뮤니티, 집단 상담, 5회기 중장기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132명 중 89명인 67.4%가 학사경고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대학에서 학사경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학과 내에서도 학사경고에 대해 잘 알거나 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안내받은 내용도 ‘학사경고 여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고를 받은 후에야 학사경고 기준 학점이나 제적 학칙을 알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전호정, 2017). 또한 군집분석 결과, “교수와의 관계”와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안내”가 4개 군집에 모두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교수와의 관계”와 관련된 결과는 교수와의 관계, 교수지지,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와(곽수란, 2012; 김경희 외, 2014, 박진영, 2012; 소연희, 2008; 안혜진 외 2014; 이경완 외, 2013; 임이랑,

2016) 구체적인 문제풀이나 학업지도보다는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이해, 대처방안 등을 상의하고 지지받고 싶어 한다는 연구결과와(이지희 외, 2017) 유사하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해 조언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교수와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대학생을 학업부진에 이르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학업부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학사경고를 받은 이후 의무 상담이나 워크숍형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대학 교육 환경과 학사 경고 제도와 그로 인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포기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관심, 대학과 학과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학사 경고 행정처리를 주관하는 부서, 그 외 대학이 사회진출 중간단계인 것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학업부진 대학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학사 경고 대학생 관련 선행연구는 우수학생과 학업부진 학생을 비교하여 결핍 특성을 학업부진 학생의 특성으로 보았으며, 학사 경고에 대처하는 과정을 유형화 하였으나 소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이기에 유형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사립 A대학을 중심으로 학사 경고 대학생의 학업부진 요인과 부진 요인을 유형으로 분류해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A대학은 지방 사립 종합대학으로, 입학성적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따라서 A대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대학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의 적용가능한 범주가 넓다고 보여진다. 또한 양적연구로 진행하여 A대학 학사 경고 대학생의 특성과 군집 분포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권 소재 4년제 A사립 종합대학의 일부 학사 경고 경험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1년 약 1500명에 달하는 학사 경고자 중 132명만을 대상으로 1개 대학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대학내 전체 특성을 대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단과대별 학사 경고자 비율에 맞게 균등표집을 하여 단과대별 대표 특성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9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군집을 나누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지 않은 대학 유형별 특성, 지역별 특성, 대학소재지

별 특성, 입학학생의 역량 수준,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에 따라 학업부진 요인과 다른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군집에 속한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해당 군집의 학업부진 특성을 깊이 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대학 비공식 SNS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군집에 속한 설문 참가자를 만나는 일이 어려웠다. 따라서 군집별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군집별 특성과 부합하는 사례를 사전 인터뷰 진술문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집에 속한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한다면, 유형별로 드러나지 않은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특정학기로 경고 받은 시기를 제한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가자 모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사경고를 받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업부진 유형의 학년별 차이를 보기가 어려웠다. 향후 특정학기로 경고를 받은 시기를 제한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년별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I. 참 고 문 헌

- 강선영(2013). **ADDIE 교수설계모형에 따른 대학생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강현철(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 고등교육법(2017). **제28조 대학의 목적**.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8.2.27.일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336&efYd=20180227#0000>
- 고영남(2005). 대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른 학업성취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3(3), 215-234.
- 곽수란(2012). 학업성취, 교사기대 그리고 학업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1-24.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2017). **교육수준별 고용률 통계, 국민교육수준 통계, 대학진학률 통계, 학력별 임금격차 통계**. 2017.6.22.일 시행. <http://kess.kedi.re.kr/>.
- 권혁재(2012). **대학생의 학업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1).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378-387.
- 김경희, 라만교, 권재환(2014).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및 학업적응의 관계모형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5(1), 45-69.
- 김계수(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시리즈**. 서울: 한나래.
-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201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391-412.

-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2014). 심리장애 진단아동의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33(4), 675-696.
- 김명찬(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희(2014). **학업적으로 추락한 대학생의 좌절 경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박인영(2011).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53.
- 김윤진(2005). **K-평균 군집분석 재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김지현, 유경자, 이진영, 최경숙(1987). 학업부진아의 원인연구. **교육 연구**, -55), 36-45.
- 김정희, 이장호(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1(1), 25-45.
- 김창민, 박인우(2012). 학교 학습환경 평가를 위한 평가목표 개발 연구. **교육방법연구**, 24(3), 637-659.
- 김철원, 윤혜진(2013). 관광 현상에 대한 이론 개발 고찰. **한국관광학연구** 37(10), 11-32.
- 남상은(2016).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이대형(2016).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3), 131-151.
- 대학알리미(2017). **2015-2017년도 중도탈락학생 현황**. 2017.12.31. 기준. <http://www.academyinfo.go.kr/>.
- 박인선(2017).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최임숙(2012).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 특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논총**, 33(2), 1-30.
- 박민지, 김계현(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성익(198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총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미(2009). 전문대학생들을 위한 학습전략 진단 도구의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1(1), 16-27.

- 박진영(2012).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47-75.
- 배상훈, 김병주, 우명숙, 이교종(2014). **대학구조 개혁 추진 방안 연구**.
- 배상확(2014). **학업부진 대학생의 실태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원(2008). 대학 수업만족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교육학연구**, 46(4), 57-79.
- 성지은, 김창호, 정진구(2017).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복합산업화 추진 실태 및 추진 후 변화를 이용한 농가 유형화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5(1), 1-22.
- 소연희(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손승현(2008). 학업부진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방법. **교육방법연구**, 20(1), 93-110.
- 신민철(2010). **경영경제 통계학의 기초**. 창민출판사.
- 신성만, 김정훈(2012). 대학생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활연구**, 18(1), 75-109.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안혜진, 정미경(2014).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 내적동기, 부모지원이 미래목표를 매개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2), 277-298.
- 양명희(2014). 대학생의 학습문제와 진단.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연차대회**, 2014(2), 139-153.
- 연보라, 장희원(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129-155.
- 윤만석(2010). **학업부진아동의 정서적 특성과 지능 프로파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정(2013). 학업부진 대학생을 위한 예방적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5(3), 643-660.
- 윤정선, 박부진(2014). 대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의 중재 및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119-141.
-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201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15-27
- 이대식, 황매향(2011). **학업부진학생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이명애(2006).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161-181.
-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석열(2008).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대학특성 요인이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3).
-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2017).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연구**, 29(1), 161-184.
-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2013). 학사경고자 대학생을 위한 자기탐색(Exploring Myself)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4(1), 359-384.
- 이지선(2013). 수업컨설팅 분석 도구 타당화 및 수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신효정(2017). 대학 입학 성적우수 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 웰니스학회지**, 12(1), 183-201.
- 이훈병(2016). 대학에서 학업부진 학습자 진단을 위한 주요인 분석. **인문사회**21, 7(3), 653-672.
- 임이랑(2016).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특성탐색 검사 문항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성화, 진석언(2009). 기독교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사회적지지 및 정신건강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179-202.
- 장애경, 양지웅(201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4(2), 995-1013.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총론**, 11, 107-124.
-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2015).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컨설팅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137-160.
- 전호선, 이문목, 박주현, 이윤옥, 김이성, 차지연(2011). **국내의 부진 학생 지도·지원 우수 사례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호정(2017).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반복적 학사경고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2005).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18(3), 155-181.
- 정진곤, 김명수, 진동섭, 박은혜, 김규환(2000). **교원전문대학원(가칭) 도입방안 연구**.

- 교육부 교육정책연구.
- 정차남, 민천식(2008). **블렌디드 러닝이 학업부진아의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원,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2000). 학사경고생의 실태와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4(-), 51-97.
- 조민아, 고은영, 서영석(2012). 잠재평균 분석을 활용한 학업태도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19(2), 55-77.
-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2012).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47-69.
- 주영아, 정희진, 황선희, 김영혜(2013).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85-115.
- 천주명, 권민혁, 한영숙, 임영진(2014). 학사경고자학업상담(2013년 2학기-2014년 1학기). **학생생활연구**, 22(-).
- 최임숙(2007). 대학생의 학교적응행동, 학업성취도와 성역할 정체감 및 학습양식의 관계. **인문학연구**, 34(2), 547-573.
- 한국대학신문 (2017).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2017.10.29.일 기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0631>
- 한덕웅, 이경성(2000). 대학에서 성적우수 학생과 학사경고 학생의 특성. **학생지도연구**, 12(1), 33-51.
- 황매향(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Allsopp, D, H., Minskoff, E, H., & Bolt, L. (2005). Individualized course-specific strategy instruct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ADHD: Lessons learned from a model demonstration project.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20(2), 103-118.
- Arcand, I, & Leblanc, R. (2011). Academic probation and companioning: Three perspectives on experience and suport. *Mevlan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1(2), 1-14.
- Boretz, E. (2012). Midsemester academic interventions in a student-centered research university.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42(2),

90-108.

- Berk, L. E.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MA: Allyn and Bacon.
- Featherman, D. L., & Hauser, R. M. (1976). Sexual inequalities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in the US, 1962-197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2-483.
- Fenning, B. E., & May, L. N. (2013).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n A": examining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reer planning.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6(4), 635-650.
- Fletcher, J. M., & Tokmouline, M. (2010). *The Effects of Academic Probation on College Success: Lending Students a Hand or Kicking Them While They Are Down?*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ger, M. A., Goldenson, J., Weinberg, M., Schmitz-Sciborski, A., & Monzon, R. (2011). The bounce back retention program: On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13(2), 205-227.
- Humphrey, E. (2005/2006). Project suces: Helping probationary students achieve academic suc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ntion: Resarch, Theory & Practice*, 7(3), 147-163.
- Juola, A. E., Winburne, J. W., Whitmore, A. (1968). Computer-asisted academic advisng. *Personel & Guidance Journal*, 47(2), 146-150.
- Kamphoff, C. S., Huston, B. I., Amundsen, S. A., & Atwood, J. A. (2007). *Motivational empowerment model applied to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397-412.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Mann, J. R., Hunt, M. D., & Alford, J. G. (2003). Monitored probation: A program that work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 Practice*, 5(3), 245-254.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02).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Polansky, J., Horan, J. J., & Hanish, C. (1993). Experimental construct validity of the outcomes of study skills training and carer counseling as treatments for the retention of at-risk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48-492.
- Rowley, D. J. & Sherman, H. (2001). *From strategy to change: Implementing the plan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age, T. L. (2010). *Academic probation: How students navigate and make sense of their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
- Sapington, A. A., Fritschi, O., Sandefer, D., & Tauxe, M. (1980). Self-directed study skill programs for students on prob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6), 616-619.
- Smith, C. P., & Winterbottom, M. T. (197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8(3), 379-391.
- Spady, W. G. (1970).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review and synthesis. *Interchange*, 1(1), 64-85.
- Tinnesz, C., Ahuna, K. H., & Kiener, M. (2006). Toward college success: Internalizing active and dynamic strategies. *College Teaching*, 54(4), 302-306.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801 S Ellis Avenue, Chicago, IL 60637.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ERIC.
- Vander, S., & Brian, A. (2007). Adding Insight to Intrusive Advising and Its Effectiveness with Students on Probation. *NACADA Journal*. 27(2), 50-59.

- Wlazek, B. G., & Coulter, L. P. (1999). The role of counseling services for students in academic jeopard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1), 3-41.
- Yang, J. W., Yon, K. J., & Kim, J. K. (2013). An effect of a mandatory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A preliminary stud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4*(4), 549-58.

## <부록 1>

###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특성 및 원인 탐색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경험 대학생의 특성과 원인을 탐색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설문을 잘 읽으시고 학사경고 당시의 경험을 최대한 잘 떠올려서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종료 시 폐기됨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계속을 눌러 연구를 진행해주세요. (약 10분 정도 소요)
- \* 성실하게 대답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기프트콘(커피)을 발송해드립니다.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석사과정

황현우

연락처 - walkthetalk00@gmail.com

## PART 1. 참여자 기본정보

다음 질문은 귀하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소속된 단과대학은 어디입니까?
 

1) IT융합대학	10) 사회과학대학
2) 경상대학	11) 약학대학
3) 공과대학	12) 외국어대학
4) 기초교육대학	13) 의과대학
5) 미래사회 융합대학	14) 인문과학대학
6) 미술대학	15) 자연과학대학
7) 법과대학	16) 체육대학
8) 보건과학대학	17) 치과대학
9) 사범대학	
  
2. 현재 여러분의 재학 상태는?
  - 1) 재학
  - 2) 휴학
  - 3) 제적
  - 4) 자퇴
  - 5) 기타
  
3. 재학 중이라면 현재 몇 학년입니까?
 

1) 1학년	6) 기타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졸업 유보	

4. 학번은? (예시: 20130789)
  
5. 현재 나이는? (예시: 23 세)
  
6. 성별은?
  - 1) 남
  - 2) 여
  
7. 입학 전형은?
  - 1) 수시
  - 2) 정시
  - 3) 특별전형(지역인재, 특성화고, 농어촌, 장애인, 기초생활, 다문화)
  - 4) 기타
  
8. 출신 고등학교는?
  - 1) 인문계
  - 2) 전문계(특성화고)
  - 3) 검정고시
  - 4) 기타
  
9. 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 1) 본인 선택
  - 2) 타인 권유
  - 3) 성적에 맞춰
  - 4) 기타
  
10. 학사경고를 받은 횟수는?
  - 1) 1회
  - 2) 2회



3) 3회

4) 4회

11.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는 언제입니까? (받은 학기 전체 체크)

1) 1-1학기

2) 1-2학기

3) 2-1학기

4) 2-2학기

5) 3-1학기

6) 3-2학기

7) 4-1학기

8) 4-2학기

12. 휴학을 한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5번으로 이동)

13. 휴학 횟수는?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14. 휴학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1년6개월

4) 2년

5) 3년

6) 3년6개월

7) 4년

15. 휴학을 한 사유는?

1) 학사경고

6) 기타

2) 군 휴학

3) 휴식

4) 진로탐색(편입, 재수 포함)

5) 아르바이트

16. 경고 직후 학기에 휴학을 했나요?

1) 예

2) 아니오

17. 학사경고가 진로나 목표에 영향을 주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 학사경고가 학교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예

2) 아니오

## PART 2.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 특성 및 요인 탐색

학사경고를 받을 당시의 경험을 잘 떠올려 제시된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나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지금 다니는 대학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채수를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지방 대학에 대한 낮은 인식이 싫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학에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4	전공과 내가 추구하는 진로는 일치했다	①	②	③	④	⑤
25	전공이 나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전공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①	②	③	④	⑤
27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출석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8	수업 내용은 흥미롭고, 주의 집중이 잘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늦은 밤까지 술을 자주 마셨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늦은 밤까지 매일 게임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새벽에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으면 오히려 공부를 더 하기 싫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	①	②	③	④	⑤
34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의 심정을 타인에게 말했다	①	②	③	④	⑤
35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우울해져서 아무 것도 하기 싫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7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38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9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1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42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했다	①	②	③	④	⑤
43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4	대학생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어떤 과목이든 높은 점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46	공부가 안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에 시험을 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47	계획을 잘 세워 일과를 보냈다	①	②	③	④	⑤
48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지 않는 편 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9	고등학교에 비해 늘어난 자유를 조절 하기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0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공부했다	①	②	③	④	⑤
51	평소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려 했다	①	②	③	④	⑤
52	하나의 과목이 망치니 하기 싫어져 다른 시험도 망쳤다	①	②	③	④	⑤
53	내 과제는 안했어도 팀원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팀 과제는 열심히 했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만의 학습방법과 노하우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5	효과적인 학습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6	학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7	학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다른 친구들보다 잘 아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8	시험을 치는 동안 너무 긴장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9	시험공부를 많이 한 경우에도 시험 볼 때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60	전공수업을 듣는데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이해가 잘 안됐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61	수업이 이해가 안되어 흥미가 안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62	공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63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64	나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공부할 시간 이 부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65	용돈을 많이 쓰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했다	①	②	③	④	⑤
66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학교를 결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67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8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69	교수님과 상담 해본 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70	교수님이 어차피 계속 나와도 F라고 한 후부터 안 나갔다	①	②	③	④	⑤
71	교수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72	학습의욕을 높여 주신 교수님이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73	학과 교수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74	이성 친구 문제로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75	친구와 다툼으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6	나는 학과나 학교 친구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77	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학과나 학교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8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줬다	①	②	③	④	⑤
79	나는 학교로부터 학사경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80	행정 서비스가 좋았더라면 경고를 안 받았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1	대학생활 전반의 진로 설계나 유익한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3. 서술형 문항

학교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경고에 이르지 않았을까?

설문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은 학사경고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학생들을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될 것입니다.